'복면가왕' 출연 명품 가창력 선보인 **김연자**

"제 2의 전성기는 지금 이 순간"

'무한도전' 출연 후 화제 … 잇단 예능 활동 활발

윤일상·신철 협업 EDM '아모르 파티' 인기

"열심히 해서 김연자 답다는 소리 듣고파"

"제2의 전성기가 온 것 같아요. '인생은 지금이야'라는 '아모르 파티' 노래 가사처럼요. 어디 가서도 노래만큼은 지고 싶지 않으니 열심히 해서 '김연자답다'란 말을 듣고 싶어요."

데뷔 44년차 가수 김연자(58·**사진**)는 말 그대로 새롭게 전성기를 맞았다. 1974년 '말해줘요'로 데뷔한 그는 1987년 일본으로 활동무대를 옮겨 20여 년 간 '엔카의 여왕'으로 전성기를 크게 누렸다.

지난 2009년 국내 무대로 복귀했지만 8년간 과거의 명성을 되찾지 못했던 그는 2013년 발표곡 '아모르 파티'가 4년 만인 올해 젊은층에까지 반향을 일으키면서 예능 섭외가 쏟아졌다. 지난 5월 MBC TV '무한도전'에 출연해 화제가 됐고, 이달에는 MBC TV '복면가왕'에 '마돈나'로 등장해 고수다운 가창력을 재확인시켜줬다.

바쁜 스케줄 탓에 최근 전화로 만난 김연자는 목소리가 밝았다. 국내 무대로 돌아온 뒤 몇몇 기자회견과 인터뷰에서 일본 매니저였던 전 남편으로부터 수익금을 거의 받지 못했다며 불운한 개인사를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던 때와 달랐다.

그는 "내가 나이도 있고 경연 프로그램이 처음이어서 '복면가왕' 출연을 오랜 시간 고민했지만 주위에서 용기를 줬다"며 "그런데 예상 밖으로 평을 잘해줘 감격해서 또 울었다"고 웃었다.

가왕 도전에 실패한 것이 아쉽지 않았냐는 물음에도 "오히려 가왕 결정전까지 도전할 수 있어서 나도 놀랐다. 후배들과 함께할 수 있는 무대가 정말 의미 있었다"고 떠올렸다.

며칠 전 KBS 2TV '해피투게더' 녹화까지 마쳤다는 그는 잇단 예능 나들이가 '아모르 파티' 인기 덕이라고 강조했다. 윤일상이 작곡하고 이건우와 신철이 공동 작사한 '아모르 파티'는 EDM(일렉트로닉댄스뮤직)과 트로트를 접목한 노래로 '인생은 지금이야/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란 노랫말이 '쿵짝'거리는 전자 사운드에 어우러진다.

갑작스럽게 이 노래가 주목받은 이유를 묻자 윤일상 등 주위 사람들로부터 "엑소 팬들 덕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웃었다.

"한 음악 방송에서 엑소 순서가 끝나고 제가 나와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 엑소 팬들이 방청석에 정말 많았는데 그 친구들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입소문을 내줬대요. 가사가 요즘 젊은층의 테마인 '욜로'(YOLO·You live only once)와 잘 어울리고 사운드도 젊은층 성향에 맞는 EDM이어서 그랬나 봐요. 그 말을 듣고 엑소 카이에게 물어봤더니 잘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하하."

김연자와 윤일상의 조합도 의외였다. 윤일상과 다리를 놓아준 사람은 철이와미애 출신 프로듀서 신철이었다.

김연자는 "윤일상 씨에게 살면서 궂은일, 좋은 일이 있었지만 앞으로의 내 삶을 위한 인생 찬가를 부르고 싶다고 했다"며 "그런데 EDM을 제안하길래 중장년 팬들이 숨차서 노래를 못 따라부를 것 같아 걱정했다. 성인가요로 끝날 줄 알았던 노래의 진가를 젊은 세대가 발견해줄지 생각도 못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금 주목을 받기까지 마음고생도 꽤 했다고 털어놓았다. 2001, 2002년 두 차례 평양 공연을 할 정도로 목소리를 인정받은 그는 한국 무대를 다시 밟을 때만 해도 예전의 인기를 바로 되찾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세월이 많이 흘러 지금의 젊은층엔 낯선 얼굴이었고, 가요계 시스템도 많이 바뀌어 있었다.

"예전 인기만 믿고 다들 절 기억해주실 것이라고 겁 없이 시작했어요. 팔팔했던 저만 생각했으니 옛날로 다시 돌아갈 줄 알았죠. 언젠가 한국 활동이 꿈이었으니 계획대로 됐다고도 여겼고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세월이 흘러 제가 나이를 먹었고 시스템도 바뀌었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은 절 모르고요. 그때부터 슬슬 땀이 나기 시작했죠. 제가 '우물 안의 개구리'란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는 이어 "그땐 이방인 느낌이었다"며 "일본에서 활동한 가수로만 여기니 위축됐고 날 어떻게 받아들일지 불안했다. 마치 불투명한 사람이란 기분이 들었다. 신인 같지 않은 신인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의 바쁜 일정이 감사하다며 일본 활동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달 일본에서 발매된 싱글 '빨간 눈물'이 오리콘 엔카차트에서 2주 연속 2위를 했다면서 현지 방송 출연을 위해 19일 일본으로 건너간다고 말했다.

의욕적으로 활동 중인 그는 지난달 MBC에브리원 예능 '비디오스타'에 출연해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란 '아모르 파티'의 가사처럼 4년째 연상남과 연애 중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기도 했다.

그는 교제하는 상대의 이름을 언급하자 "그분이 맞다. 내가 좋아하고 의지가 되는 분"이라고 솔직하게 밝히면서도 "상대를 배려해 아직은 공개할 때가 아니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응팔 짝사랑 커플' 실제 커플되다

류준열·혜리 열애

"친구에서 연인으로"

◀류준열

혜리▶

배우 류준열(31)과 걸그룹 걸스데이 멤버 혜리(본명 이혜리·23)가 열애 중이다.

류준열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16일 "류준열은 최근 혜리와 친한 동료에서 연인으로 발전해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다"며 "팬 여러분께 갑작스럽게 열애설 소식을 알려드리게 돼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최근에 만남을 시작한 만큼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8살 차이인 류준열과 혜리는 2015년 방송한 tvN '응답하라 1988'에서 각각 정환과 덕선을 연기했다. 극 중 정환은 오랫동안 덕선을 좋아했지만 덕선은 결국 택(박보검 분)과 맺어졌다. 두 사람이 드라마에서 못 이룬 사랑을 현실에서 이룬 셈이다.

류준열은 2015년 영화 '소셜포비아'로 데뷔해 '응답하라 1988'로 스타덤에 올랐다. 이후 드라마 '운빨로맨스', 영화 '더킹'과 '택시운전사' 등에 출연했다.

혜리는 2010년 걸스데이로 데뷔했으며 마찬가지로 '응답하라 1988'을 통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후 연기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지금은 영화 '물괴'를 촬영 중이다. /연합뉴스

유식한 아재들의 독한 인물평가

tvN '유아독존' 내달 첫 방영

보수와 진보의 아이콘 전원책 변호사와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판 대결을 벌인다.

tvN은 다음달 9일 밤 12시 두 사람이 출연하는 '유식한 아재들의 독한 인물평 Zone : 유아독존'〈**사진**〉을 방송한다고 16일 소개했다.

최근 종영한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알쓸신잡)이 유시민·김영하 작가, 정재승 교수, 황교익 칼럼니스트의 남다른 화술로 성공을 거둔 가운데 또 다른 입담꾼들이 나선 '유아독존'도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을지 기대를 모은다.

전원책 변호사와 정봉주 전 의원은 각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는 '파워맨'을 면밀히 분석해 성공 비결부터 숨겨진 비화까지 풍성한 지식을 뽐낼 예정이다. MC로는 개그맨 서경석이 나선다.

제작진은 "'파워맨'들의 뻔하지 않은 뒷이야기를 재밌게 풀어낼 예정으로, 국제사회의 변화와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유익한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⑥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스페셜	00 여름기획 다큐멘터리 3일 〈떠나면 보인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훈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⑧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좌충우돌 만국유람기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⑨	30 KBS 뉴스	00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⑩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죽어야 사는 남자(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⑪	00 UHD 명품역사관 정도전 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맨홀 - 이상한 나라의 필 (재)		00 애니갤러리 30 고향이 보인다
⑫	00 KBS 뉴스 12	05 인간극장 스페셜	00 MBC 정오뉴스 20 하하랜드 스페셜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톡톡 보험설계
❶	00 사랑의 가족 50 꼬마농부 라비		2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55 닥터 365
❷	20 반지의 비밀일기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 (재)	25 텔레몬스터 (재) 30 똑?똑! 키즈스쿨	00 뉴스브리핑
❸	10 여름휴가에 읽으면 좋은 고전 시리즈 서가식당 (재)	00 2017 런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하이라이트	00 뽀글아 사랑해 (재) 30 헬로키즈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❹	00 4시 뉴스집중	00 여름방학기획 누가 누가 잘하나	00 MBC 뉴스M	00 여행배틀 로그인 코리아 (재) 55 지식 통조림
❺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터닝메카드 W 2 30 주간연예수첩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5 KBC 저녁뉴스
❻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10 다시 만난 세계(재) 45 날씨와 생활 50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❼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이름 없는 여자	05 천년의 전라도 스페셜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10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
❽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속보이는TV 인사이드	55 별별며느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이런일이
❾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❿	00 광복절기획 KBS 스페셜 55 숨터	00 맨홀 - 이상한 나라의 필	00 죽어야 사는 남자	00 다시 만난 세계
⓫	00 KBS 뉴스라인 40 UHD 문화기행 낭만 오디세이	10 해피 투게더	10 희망릴레이 토크콘서트 청춘진담	10 자기야 - 백년손님
⓬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MBC 뉴스 24 3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4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통일 미리보기 〈누설 금지〉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레인보우 루비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출동! 슈퍼윙스
08:00 딩동댕 유치원 1~2
08:30 뚝딱맨
08:45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쥬
09:15 엄마 까투리(재)
09:30 몰랑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가지잼과 불고기 크레이프샌드위치〉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장수의 비밀 〈차봉 할아버지네 경사 났네〉
12:40 지식채널e
12:45 명의(재)
13:40 다큐영화 - 길 위의 인생 〈묘의(苗醫), 천 년의 전설〉
14:30 호기심나라 오키도
15:00 그림을 그려요
15:05 두키 탐험대
15:20 마샤와 곰
15:35 모피와 친구들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6:15 허풍선이 과학쇼(재)
16:30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16:45 딩동댕 유치원1~2(재)
17:15 뽀롱뽀롱 뽀로로(재)
17:30 로보카 폴리
17:45 뚝딱맨(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19:00 놀자고(재)
19:30 EBS 뉴스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50 세계테마기행 〈겨울로 가는 길 뉴질랜드 여행은 영화처럼 무비로드〉
21:30 한국기행 〈명물찾아 섬만리 복더위 잡는 바다맛 도초도〉
21:50 과학 다큐 비욘드 〈교통 혁명의 신호탄, 하늘 나는 자동차〉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금쪽같은 내 새끼랑
24:05 지식채널e
24:10 스페이스 공감 1, 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7일(음 6월 26일 丙子)

子 **48년생** 아니 되는 것을 강행한다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60년생** 소문나지 않게 처리함이 백 번 나을 것이다. **72년생** 잔물결이 항해에 주는 역할은 미미하도다. **84년생** 무리하게 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57, 02

丑 **49년생** 강풍이 불 것이니 우선 은신처로 피하고 보자. **61년생** 숨고르기를 하면서 숙고해 본다면 선택의 여지는 있을 것이다. **73년생** 전후좌우를 잘 살펴보고 조처해야 할 때다. **85년생** 실제보다 더 부풀려진 것임을 참고하라. 행운의 숫자 : 53, 64

寅 **50년생** 완성도의 차원에서 바라보자. **62년생** 외형상으로는 복잡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풍부해진 셈이다. **74년생** 엄격한 기준이 없다면 부실함을 면치 못한다. **86년생** 노력 앞에서는 그 어떠한 화도 비켜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6, 47

卯 **51년생** 본격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 **63년생** 혁신적인 방안을 도모하라. **75년생**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소신껏 처리하자. **87년생** 굳은 마음가짐이라면 충분히 견디어 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8, 31

辰 **52년생** 주변의 인맥을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64년생** 살펴보면 여실히 드러나리라. **76년생** 여과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점을 안고 갈 수 있다. **88년생** 소모적이므로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행운의 숫자 : 95, 32

巳 **53년생** 단일한 방법으로 임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65년생**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77년생** 도모하기 위해서 물밑 작업이 활발하다. **89년생** 천군만마를 얻음과 같이 흡족하리라. 행운의 숫자 : 84, 27

午 **42년생**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나 염려된다. **54년생**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 질 수도 있다. **66년생** 중간 점검이 절실히 요청되느니라. **78년생** 경사스런 일로 인해서 축제 분위기에 싸여 있는 정황이다. **90년생** 돕는 이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77, 50

未 **43년생** 형편을 감안해서 적절히 처리하자. **55년생** 가닥이 잡히리라. **67년생**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판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79년생**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펼쳐진다. **91년생** 돌고 도는 이치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3, 91

申 **44년생** 초심대로라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56년생** 순조로움을 더 하고 있으니 가속도를 낼 때다. **68년생** 핵심에서 벗어나면 그만큼 손해로 이어진다. **80년생**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으니 어림잡아도 하등의 지장이 없다. 행운의 숫자 : 73, 16

酉 **45년생**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이니 삼사일언 하자. **57년생** 짧은 시간을 할애해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으리라. **69년생** 현재 상태대로 진행하라. **81년생** 가볍게 넘겨도 아무 이상이 없겠다. 행운의 숫자 : 27, 18

戌 **46년생** 공명정대한 자세로 당당하게 임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58년생**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70년생** 상대의 충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82년생** 인내가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4, 50

亥 **47년생** 넘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밖에 없다. **59년생** 이제는 결단력을 보여줘야 할 때가 되었도다. **71년생** 멀리 내다 볼 수 있는 시야의 확보가 절실하다. **83년생** 결실을 보기 시작하는 수확기에 접어들고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56, 7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